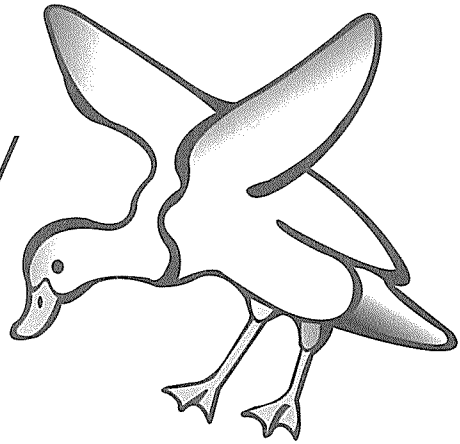


## / 종오리 농장방문 /

영국 사육관리 담당  
데이비드



지난 2월 20일 종오리 사육농장의 현장 기술지도를 위해 방한한 데이비드는 가금사육 농장에서 30년간 근무경력이 있고, 특히 영국 체리벨리사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지금은 사육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사육관리 기술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21일부터 3월5일까지 종오리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한 현장을 이틀 동안 동행하고 마지막 날 종오리 농장을 돌아본 소감을 들어 봤다.

〈동행취재/조문규 사무국장〉

21일 이른 아침 구디스 엔터프라이즈 권영혜씨와 함께 인천공항 하얏트 호텔에서 종오리 사육농장의 기술 지도를 위해 방한한 데이비드를 처음 만났다. 반갑습니다. 연배가 많아 정장을 입었다면 흔히 이야기 하는 영국의 노신사쯤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연배였다. 나중에 솔잎농장을 방문하여 이 농장 사장님과 동년배인 59살이란 것을 알았다.

중국은 한해에 3번 정도 방문하지만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이비드는 인천을 출발하여 이천의 솔잎농장으로 이동하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놓고 호기심어린 눈빛이 역력했다.

### 〈솔잎농장 방문〉

솔잎농장 사무실에 들어선 데이비드는 프랑스 그리므드사에서 제공한 오리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왜 이 사진이 이 농장에 걸려 있는지 묻는다. 솔잎농장 차준열 사장이 2001년도 오리부화를 처음시작하면서 프랑스 그리므드사 종오리를 수입하여 새끼오리를 생산했다는 설명을 듣고 다소 이해하는 분위기에 차사장이 나이를 묻자 동갑인 46년생이란 말에 친구가 됐다.

차사장은 우선 종오리 수입과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백신을 하여 종자를 수출하는지는 묻는다. 데이비드는 백신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솔잎농장의 현재 부화율에 대한 질문에 차사장은 84%라고 하자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체

리벨리사의 종오리는 수정율 95%에 부화율 87%가 목표이며, 또 영국의 육용오리 농장의 성적은 45일령에 3.5kg, 육성율 96%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답한다.

차사장은 체리벨리사의 종오리 수출가격은 타사에 비해 비싸다며 비싼만큼 효과가 좋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데이비드는 체리벨리사 종오리는 사료를 적게 먹고 지방이 적으며 살코기 생산이 많아 경쟁사의 종오리와 차이가 있다고 대답한다.

초생추 수입 이후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데이비드는 운반차량의 온도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이동온도는 37도씨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입추사의 온도는 입추 48시간 전에 온도를 세팅해 줄 것을 요구고 바닥의 온도계로 37도씨가 입추사의 온도로 적정하다고 설명한다.

또 입추시의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며 칩카드(축사내 양철로 동그랗게 만든 칸막이)하나에 760수의 초생추를 넣고 바닥에 6개의 물통을 놓아 미지근한 물을 급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외 5개의 물통은 찬물이 급이되는 자동급수기를 새끼오리 목높이에 달아줄 것을 제시했다.

초생추가 도착하면 입추사에 넣으면서 바로 바닥에 놓인 물통에 넣어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어 물을 바로 먹을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단다. 이는 입추사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면 젖은 털이 바로 마를 수 있어 폐사와 연결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료는 농장 도착 후 3-4시간 후에 바닥에

놓인 물통을 비우고 여기에 사료를 급이 하고 사료는 첫날만 충분히 급여하고 이틀째 부터는 종오리 사료급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양을 줄 것을 주문했다.

부화장의 부화기 관리상태와 종란세척등 시설을 둘러본 데이비드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아람영농조합>

데이비드 일행과 대면한 아람농장 문용성 사장은 구디스엔터프라이즈 권영혜씨와 데이비드 일행을 매우 반갑게 맞이한다. 권사장과는 화천농장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주자 원문을 줄 것을 문사장은 요구한다.

그리고 종오리에 대한 질문을 쏟아 놓았다. 체리벨리사의 종오리가 SM2에서 SM3로 전환되면서 사료로 인해 산란율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사료영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본다. 물론 현재는 사료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어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에 대한 데이비드는 영국은 종오리 사료에 대한 영양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며 필요하다면 사료를 검정해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또 권영혜씨는 부화장들이 필요하면 협회를 통해 여러 가지 시료를 영국으로 보내 검증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사장은 현재 도입된 PS가 22주령에 10% 산란하고 있다고 하자 관리상태가 좋다고 답하고 일일 230g의 사료를 먹고 있다고 하자 이 역시 문제가 없단다. 또 종오리에 대한

니플 급수기 설치시 여름철에 문제가 없는지를 묻자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니플 급수기는 위생적으로 좋으나 한국은 기후조건이 건조하여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급수 시 눈도 씻을 수 있어야 좋단다. 오리는 1백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물이 사육관리에 매우 중요하며 90g의 좋은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물은 충분히 급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니플 급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부화중 부화기의 24일령 부화종란의 감소율에 대해 질문하자 너무 많이 감량되면 탈진으로 죽고 너무 적으면 산소공급량이 적어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며 습도를 잘 조절해 줘야 함을 강조한다.

이외 발생기에 대한 습도를 발생 8시간 전에 여어주라고 했는데 걱정 습도를 묻자 수시로 열어보고 조절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발생 후 분양거리가 길면 습도를 높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부화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문의 한 후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 < 황아부화장 >

황아부화장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먼저 종오리의 기록관리상태를 질문하자 기록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모든 자료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래야 문제를 찾을 수 있다면 기록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료급이에 대한 질문에 이재석 사장은 일일 150g정도 급이하고 있다고 하자 체중을 묻자 달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암수 분리사육에 대해 묻자 합사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비싼 종오리를 들여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오리 사양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며 현재 종오리의 체중을 달아보라고 제의했다. 농장에서 사육중인 PS의 체중을 측사별로 5마리씩 3번 달아 체중을 체크하자 수컷의 무게가 도달체중에 모자란다고 내일 당장 암수를 분리하여 사육하고 일일 사료프로그램을 일주일에 걸쳐 증량해 주는 프로그램을 적어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사장이 수컷이 체중이 과체중과 적은체중에 대한 영향을 묻자 저 체중이 더 나쁘다며 이 경우 수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종오리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후 잘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료 프로그램은 목표 체중에 미달하면 약간 많이 급여하여 목표 체중에 맞게 가져가고 목표체중을 넘으면 사료 급여량을 줄여 목표체중을 맞추면 된단다. 또 18주령 이후 초란이 생산되면 종란의 무게가 90g에 도달하도록 사료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90g그램에 도달될 때까지는 높여주고 평균 종란의 무게가 90g에 도달하면 사료급여량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료급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산란개시 전까지는 매주 체중을 달아 (주간 5마리씩 최소 5번) 평균 증량을 체크하고 목표체중에 맞는지 점검하여 사료를 조절하고 산란 이후는 종란의 평균 무게를 달아 사료급여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코리아덕 >

코리아 덕에 도착한 데이비드는 양태식 사장

의 안내로 코리아덕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받았다. 종오리 사육에서 새끼생산과 위탁사육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여 체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 설명을 듣고 데이비드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칭찬한다. 또 체인점의 오리고기 요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우 관심 있는 표정과 함께 영국에서 같은 식당을 오픈하면 좋을 것 같다며 체인점 개설 등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양사장이 주원농산에 있으면서 사육관리, 사양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무한 경력을 이야기하고 가공장에서 가공하는 오리를 돌아보고 도축된 오리의 가슴살이 적고 복강 지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체리벨리사의 PS에서 생산된 오리는 가슴살이 훨씬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복강 지방은 적게 될 수 있다며 체리벨리사 종오리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부화장의 시설을 돌아보며 종란세척에 대한 시설을 돌아보고는 종란세척시 양쪽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장치를 하면 종란의 외부막을 얇게 해 주어 부화율이 향상된다고 조언하고 종오리 사육농장을 돌아보고 사육관리에 적합하게 잘 지어졌고 관리도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영양축산>

영양축산을 방문한 시기는 늦은 저녁 위탁농장은 돌아보지 못하고 부화장에 대한 점검과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영양축산이 보유하고 있는 종오리는 주령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평균 부화율은 68~70%를 제시하자 주령에 비해 부화율이 잘나온다고 데이비드는 평했다.

현 주령에서 난각이 얇아 파란율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현 주령에서 파란율이 그정도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한다. 또 시산 22주령에 있는 종오리의 산란율이 10%, 24주령에 50% 정도 산란에 대한 질문에 지극히 정상이라며 F1 종오리는 PS에 비해 산란시기가 1주일 정도 늦어진다고 밝혔다.

종오리 사육에서 육성오리 사료를 급여하다 종오리 사료로 교체하여 급여하는 시기에 대한 홍성대 사장의 질문에 28일령까지 6주간 어린오리 사료를 급여하고 이후 단백질이 적은 육성오리 사료로 교체 급여 후 18주부터 산란오리 사료를 급여해 줄 것을 제시했다.

점등 시간에 대한 질문에 빛의 강도가 20룩스 정도인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가 좋으며 17시간 고정 점등에 대해서는 일기와 프로그램에 있는 사항을 참고할 것을 제시한다.

또 체리벨리사는 오리사육에 대한 80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장을 찾아가면 모두가 다 안다고 하고 모두가 박사이나 데이비드는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을 통한 기술이 터득되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또 데이비드는 영국의 육용오리 사육농장의 생산성적을 사료는 7.8kg을 섭취하고 평균 사료효율은 2.2대 1 정도이고 도체의 지육률은 64% 정도라고 설명했다.